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강연 프로젝트...8일~10월 9일

‘광주 정신’ 탐색... ‘광주 선언문’ 만든다

세계 석학·시민단체 등 참여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탐색하는 대규모 국제심포지엄 및 강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 결과물은 오는 11월 2014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가 끝나기 전에 맞춰 광주 발 선언문으로 세계에 배포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올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프로젝트 강연 시리즈를 오는 8일 특별전 개막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강연 시리즈는 세계적인 석학과 인권단체, 문화활동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해 정치, 경제, 사회, 예술의 현재와 시대적 화두를 다각적인 인문학 채널을 통해 논의하는 자리다.

특별전 ‘달콤한 이슬-1980 그후’가 개막하는 8일 오후 2시에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거시기홀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M. 보르홀로티(베니스 주에카 스페이스 큐레이터) 진행으로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오쿠이 엔위저(2015베니스비엔날레 예술감독·스카이프 발제)의 ‘도큐멘타11’, 카스퍼 피니히(윈스타 조각프로젝트·2014마니페스타 예술감독)의 ‘윈스타 조각 프로젝트’ 발제가 이어진다.

이어 29일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매체와 미래정치’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과

■강연 내용

날짜	제목	장소
8 8	지각변동을 일으키는사람들	비엔날레 거시기홀
29	매체와 미래정치	
9 5	문명의 생태적 전환	
15	알프레도 자. 참 힘들군	
19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25	자유 집담회:제7의 버스	5·18 교육관
26	국가폭력	비엔날레 거시기홀
10 7	대안적 가치와 삶	
9	전환도시-해킹더시티	

초청강연이 동시에 진행된다. 프라이트 로자나프록(태국 더네이션 기자)이 ‘동남아시아의 언론매체와 저항운동-태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이어 워르겐 밀러(독일 바이로이트대학 미디어학 부 교수),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2014광주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9월5일 오전 10시30분 거시기홀에서 ‘문명의 생태적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밀양 송전탑, 세월호 사고 이후의 한국사회에 대해 생각해본다. 특히 이계삼 밀양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과 ‘단속사회’ 저자 엄기호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9월15일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철레 출신 민중 미술 작가이자 건축가,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알프레도 자가 참석해 ‘참 힘들군’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9월1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주제로 피터 바머(미국 에버그린 주립 대학교 수), 레니 라구반시(인도 인권감시민중위원회 사무총장), 임지현(한양대 사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9월25~26일에는 국내·외 국가폭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25일에는 밀양송전탑 사건 관계자, 제주도 강정 마을 주민, 용산 참사 피해자 등이 광주시민, 5·18 유공자들과 만나 5·18 사적지를 순례하고, 토론(5·18 교육관)을 진행한다. 26일에는 ‘스리랑카의 실종 : 지속되는 문제’, ‘한국의 국가폭력 역사’ 등의 발제가 진행된다.

10월6일 오후 2시에는 루자야 아브하르(태국 치앙마 이대 교수·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단체 심사위원)이 거시기홀에서 ‘문화유산 다양성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 주제 강연을 하고, 10월9일 오후 2시에는 ‘해킹더시티’ 주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심포지엄과 초청 강연은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강연 일정은 광주비엔날레재단 홈페이지(http://www.gwangjubiennale.org/)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2-608-4335.

김경민기자kiki@kwangju.co.kr



박종선 명인

김무길 명인

호남 출신 명인 5인 5색 8월의 우리가락 향연

전남문예재단, 매주 토요일

전남문화예술재단이 국악계를 대표하는 호남 출신 명인들을 초청해 지역민들에게 전통 국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남문화재단은 8월 한 달 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호남 출신 명인을 초청, ‘5인 5색 명인열전’ 토요일국악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신영희 명창을 비롯해 박종선(아쟁 산조), 김수연 명창, 김무길(거문고 산조), 김평호(전통무용) 명인이 함께한다.

지난 2일 열린 첫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인 진도 출신 신영희 명창의 무대였다.

오는 9일에는 광주 출신 박종선 명인(서울시무형문화재 제39호 박종선류 아쟁산조 보유자)이 박종선류 아쟁산조를 들려준다. 이어 16일에는 군산 출신 김수연 명인(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전수교육조교)이 단가 ‘벗님가’와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을 부른다.

23일에는 곡성 출신 김무길 명인(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 산조 전수교육조교)이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를 연주하고 마지막 공연인 30일에는 고흥 출신 무용가 김평호 명인(정주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이 무대에 올라 전통무용인 소고춤과 장한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한가는 선비들이 풍류를 수학하며 생활하던 춤객 선비 모습을 풀어낸 춤이다. 문의 061-280-5833, 061-375-6928.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지난 3월 장 드 르와지 파리 팔레 드 도쿄 관장이 강연자로 나선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강연 시리즈 첫 번째 강연.

전통문화관 하반기 수강생 모집

판소리·공예 등 22일까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인에게 직접 판소리, 전통음악, 가야금 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하반기에도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9월 2일 개강해 총 1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을 5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강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악실기(판소리, 판소리고법, 가야금배우기)와 전통공예(거문고 만들기), 전통다도, 전통음식(장·장아찌), 전통무용, 전통민화 등 12개 과목을 운영한다.

22일까지 방문접수를 통해 과목별로 12~20명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7만원이다. 문의 062-232-1501~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범대순·조방원·문장호...광주·전남 예술인 추모

문예 계간지 ‘소나무’ 가을호

(사)광주예술인회가 발행하는 문화예술계간지 ‘소나무’ 가을호(통권 9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은 ‘추모특집 광주가 애도하다’로 범대순 시인, 아산 조방원 선생, 회재 문장호 선생 등 최근 세상을 떠난 광주·전남 예술인들의 예술세계와 삶이 문집집 드맹아트홀 관장, 임환보 전남대 교수, 손정연 전 언론인, 정금희 전남대 교수, 김대원 조선대 교수, 조송식 조선대 교수의 글로 소개된다.

테마기획 ‘시로 읽는 나무’에서는 조태일, 전원범, 강인한, 허행만, 김중 시인 등이 긴 세월 사람과 함께 해온 나무를 주제로 쓴 시가 소개된다. 사진작가 강봉규 화백의 작품도 함께 실렸다.



‘터 이야기’에서는 지난 5월 개교 87주년을 맞은 전남여고 가 소개되고, ‘예술인의 삶이야기’에서는 순수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용아 박용철 시인의 삶과 작품 세계를 살펴본다.

‘살아숨쉬는 근대미술관’에서는 조각가 탁연하씨를 만났고, ‘창작과 열정’에서는 서예가 학정 이돈홍 선생, 한국화가 김대원 조선대 교수, 소프라노 박계 조선대 교수 등이 소개된다.

한편 광주예술인회는 광주·전남 지역 원로 예술인들의 모임으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 /김경민기자kiki@kwangju.co.kr

차세대 영화감독 모여라

‘제16회 한국청소년영화제’ 작품 공모

(사)멕시코청소년사회교육원 한국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이영민·문화공방DKB 대표이사)는 오는 9월20일까지 ‘제16회 한국청소년영화제(KYFF)’ 작품을 공모한다.

대상은 전국 중·고등학교생 및 만 13~18세 청소년으로 분야는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이다. 작품 런닝타임은 25분이다. 출품작은 지난해 9월 이후 제작된 작품이어야 하며 주제는 제한이 없다. 단 타 영화제 대상 수상작은 제외된다.

작품은 한국청소년영화제 홈페이지(http://한국청소년영화제.kr) 프로그래밍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웹하드에 제출하거나 영화제 사무국(광주시 동구 의재로 43번길 27-3)에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외함께 오는 31일까지 KYFF 청소년 서포터즈도 모집한다. 대상은 고등·대학생 및 만 16~24세 청소년이다. 서포터즈는 9월22일~10월12일 홍보 및 진행 스태프, KYFF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서포터즈에게는 봉사활동 증명서가 발급되며 소속 학교에 해당 기간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해준다.

한편 KYFF는 10월10~1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무대의 롯데시네마 총장점에서 ‘1318의 창, 시선과 기억’을 슬로건으로 열린다. 문의 062-368-8041. /김경민기자kiki@kwangju.co.kr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